

역량기반 교육 강화를 위한
「전공능력」

학과(전공)명	문헌정보학과
---------	--------

□ 학과(전공)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

학과(전공) 교육목표	창의적 전문지식의 함양
	정보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 함양
	정보사회 가치 확산능력의 배양
학과(전공) 인재상	SWULIS-K&E(Knowledge & Expertise):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 전문성을 갖춘 인재
	SWULIS-A&E(Application & Experience): 전공지식을 정보환경에 적용하는 지식 응용력을 갖춘 인재
	SWULIS-S&E(Sharing & Expansion): 전공지식과 현장경험을 사회에 나누고 확산하는 인재

- ① 2019년에 설정한 학과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작성 (2019년에 미참여한 학과는 신규로 작성)
- ② 줄/칸 추가 및 삭제 가능
- ③ 인재상, 교육목표의 개수가 일치할 필요 없음

□ 학과(전공)의 전공능력

○ 전공능력 설정

<전공능력이란> 단과대학 또는 학과(전공)의 관련 분야에서 요구하는 직무, 과업 및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의미함

전공능력		전공능력의 정의
①	정보수집·조직능력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맞는 정보를 선택하고 입수,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지식정보원을 이용자가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할 수 있는 능력. 공공도서관의 자료조직 분야, 대학도서관의 학술지 선별, 전문도서관의 데이터 조직 관련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임.
②	정보분석·종합능력	이용자의 잠재적 정보요구를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분석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종합할 수 있는 능력. 정보자원의 이용성과, 프로그램 이용성과, 학술연구성과 데이터 등을 분석하고 종합할 수 있는 능력. 공공도서관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관련 정책 분석, 대학도서관의 대학도서관평가 및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분석, 전문도서관의 학술출판과 글로벌 동향 분석 등에 요구되는 능력임.
③	정보서비스 기획·운영능력	정보서비스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이용자 특성에 따라 요구를 분석하고 요구에 맞추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관종의 도서관과

전공능력	전공능력의 정의
	정보센터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으로 공공도서관에서는 이용자의 잠재적 요구에 기반한 서비스 기획과 운영을 위해, 대학도서관의 이용자의 교육학습 및 연구 지원 서비스, 전문도서관의 정보서비스 및 시스템 기획과 관련한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학교도서관의 도서관 활용수업이나 독서프로그램 기획에 활용됨.

○ 전공능력 설정 절차 (해당 항목에 V표시, 복수선택 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과(전공) 내 교수회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내·외적 환경 및 학문 변화 분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외부 전문가 참여(자문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학생 의견 수렴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전공능력 설정 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도출되었는지 해당되는 항목에 V 체크함

○ 4대 점검요소에 따른 전공능력 점검 (점검내용 기술)

<p>〈전공능력 4대 점검요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공능력의 정의에 맞게 설정되었는지 ② 대학의 인재상 및 비전과 연계되어 있는지 ③ 대내·외적 환경 및 학문의 변화,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지 ④ 전공 교육과정이 전공능력과 연계되어 있는지 점검
--

점검내용	<p>① 문헌정보학과 전공능력으로 설정된 정보수집·조직능력, 정보분석·종합능력, 정보서비스 기획·운영능력은 다양한 전공 관련 분야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구체적이면서도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전공능력의 정의에 부합함.</p>
	<p>② 문헌정보학과에서는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창의적 전문성을 갖춘 인재, 지식 응용력을 갖춘 인재, 전공지식과 현장경험을 사회에 나누고 확산하는 인재를 학과의 인재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전공능력은 이러한 인재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세부 항목들로 구성됨.</p>
	<p>③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1차 전공교육과정 공통프레임워크 개선사업에서 설정된 전공능력이 모든 분야의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임을 확인하였으며,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기존의 교육과정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키워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함.</p>

	④ 전공 교육과정과 전공능력과 매핑을 통해 어떤 교과목이 어떤 능력의 향상에 중요한 과목인지 파악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 내용에서도 각 전공능력의 배양을 위해 현재 개설 중인 교과목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이나 추가할 만한 교과목에 대한 조언을 얻음.
--	--

○ 전공능력과 교육목표의 연계성

전공능력	연계성(√표시)	
	대학(SWU2030)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	학과(전공)의 교육목표
정보수집·조직능력	최상 V상 중 하	최상 V상 중 하
정보분석·종합능력	최상 V상 중 하	최상 V상 중 하
정보서비스 기획·운영능력	V최상 상 중 하	V최상 상 중 하

○ 전공능력 자체평가 (자체평가 내용 기술)

<p><자체평가 방법></p> <p>① (필수) 외부 전문가 자문 ② (필수) 소속 재학생 의견조사(설문조사, 간담회 등) ③ (선택) 기타 방법</p>
--

자체평가 결과	외부 전문가 자문
	<p>1. 전공의 특성상 도서관의 종류마다 요구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관종별 전문가를 섭외하여 자문을 구함</p> <p>2. 자문위원리스트</p> <p>1) 공공도서관: 불암도서관 도혜진 사서 2) 대학도서관: 서울여자대학교 도서관 유나현 사서 3) 전문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유수현 박사 4) 학교도서관: 포천중학교 송현정 사서교사</p> <p>3. 각 자문위원은 2019년 요람에 제시되어 있는 학과 전공능력(정보수집·조직능력, 정보분석·종합능력, 정보서비스 기획·운영능력)과 교과목 리스트를 검토하고 각자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공능력이나 교과목에 대하여 조언을 제공함.</p>

4. 자문 내용

1) 모든 분야에서 학과 전공능력인 “정보수집·조직능력”, “정보분석·종합능력”, “정보서비스 기획·운영능력” 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음.

2) 공공도서관에서는 정보수집·조직능력의 배양을 위해 “목록과 의 미론적 정보가공”, “정보조직: 분류”, “멀티미디어 정보조직” 등의 교과목이 중요하며, 정보분석·종합능력을 키우기 위해 “도서관정보자원개발론”, “도서관·정보센터 경영기획론” 등의 교과목을, 그리고 정보서비스 기획·운영능력을 위해서는 “정보이용자연구” 와 “정보서비스론” 등의 교과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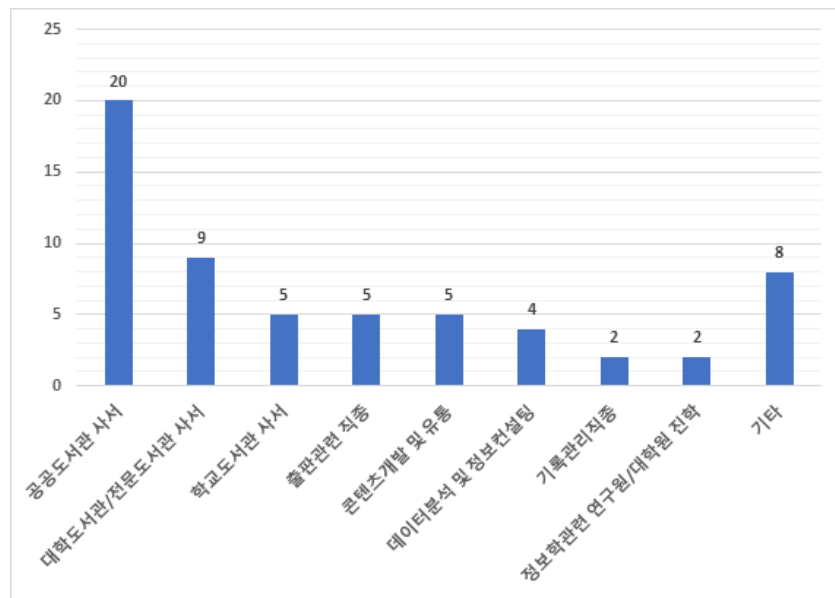
3) 대학도서관에서는 정보수집·조직능력과 관련하여 “도서관정보자원개발론” 이나 “디지털도서관시스템평가” 과목에서 부실 학술활동을 통한 정보원을 가려내는 능력이나 사업진행 및 계약과정에서 관련 업체나 타 부서와의 소통 및 협상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 되어야 한다는 점과 자관 컬렉션 및 큐레이션에 대한 특수한 분류 및 조직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정보조직: 분류” 나 “멀티미디어 정보조직”, “빅데이터와 시맨틱웹” 과목에서의 실습을 추천함. 정보분석·종합능력과 관련하여 “도서관·정보센터 경영기획론” 에서는 각종 정부기관의 정책 및 평가 항목에 대한 부분과 도서관 신축이나 리모델링 추세를 반영하여 도서관의 공간구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 어줄 것을 제언함. 또한 정보서비스 기획·운영능력과 관련하여 “정보서비스론” 이나 “주제별정보원” 에서 이용자의 교육학습 및 연구 지원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4) 전문도서관에서는 교과과정 전반에 대하여 ① 세부 전공의 특성화 전략, ② 개론 과목의 1학년 배정, ③ 교과목명의 직관적 명명에 대하여 제언하였으며, 전공능력 중에서는 특히 정보서비스 기획과 더불어 프로젝트 관리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정보서비스 담당자는 정보서비스 및 시스템을 기획하는 기획전문가로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또는 프로세스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임. 전문도서관에서 필요한 전공능력의 배양을 위해 추가로 개설되었으면 하는 교과목으로는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정보협력론”,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혹은 데이터 큐레이션이나 정보자원 큐레이션)” 등을 제시하였고, 현재 운영 중인 과목에서 좀 더 추가로 다루 었으면 하는 내용에는 오픈액세스와 학술출판에 관한 내용, 글로벌 동향 수집 및 분석에 대한 내용, 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 정보서비스 마케팅에 대한 내용 등을 제시하였음.

5) 학교도서관의 경우에도 도서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도서관 공간 구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 있었으면 한다는 점과 독서교육론 관련 과목의 추가를 제언함. 또한 온라인 학습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이므로 온라인 학습자료나 교구 제작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함. 이와 관련하여 교과교육과의 협력 수업이나 사서교사의 단독 수업 등 수업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수업 연구 및 수업 콘텐츠 개발 등과 관련된 교과목의 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함.

소속 재학생 의견조사

-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전원이 수강 중인 졸업인증 과목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가상강의시스템에서 설문을 실시함
- 설문은 총 세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복수응답가능)
 - 본교 문헌정보학과의 교육과정이 희망하는 진로를 준비하는데 기여한 정도(5점 척도)
 - 현재 문헌정보학과의 교육과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자유기술)
- 36명의 수강생 중 총 32명이 설문에 응하였으며(88.89%), 그 중 13명이 주관식 문항에 응답함(40.625%).
-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에 대한 문항은 8개 진로와 기타(자유기술), 총 9개 항목을 복수 응답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그림1>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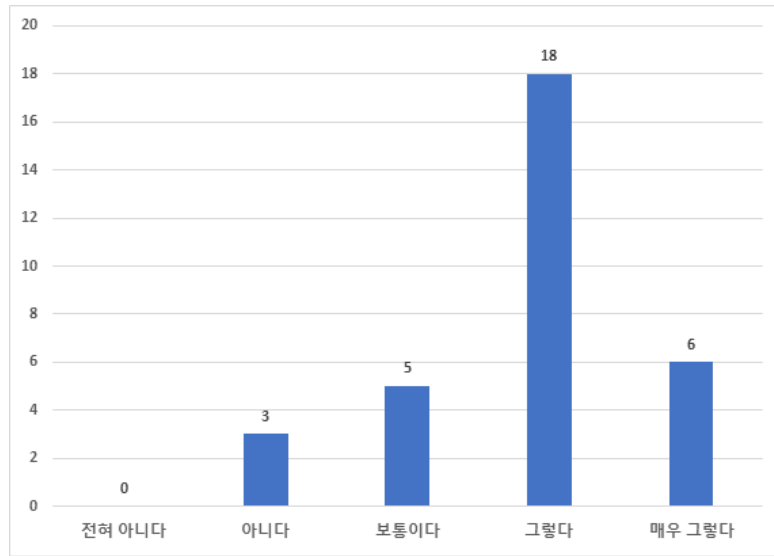


<그림 1> 문헌정보학과 졸업예정자들의 희망 진로

분석 결과 가장 많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는 공공도서관 사서로 나타났고, 그 외에도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 사서가 상당히 많은 수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서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기타 의견으로는 총 8개 응답이 있었으며, 공기업이나 사서공무원 등 공공 기관에 대한 관심을 비롯하여 사기업이나 사기업 마케터, 일러스트레이터, 장비 업체, 외국어 관련 업무, 서비스 기획자 등 다양한 진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중 사서공무원에 대한 희망은 공공도서관 사서를 희망하는 것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서비스 기획자 역시 모든 종류의 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직종임.

5. 본교 문헌정보학과의 교육과정이 희망하는 진로를 준비하는데 기여한 정도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 고 답한 학생이 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56.25%), “매우 그렇다” 고 답한 학생이 6명(18.75%), “보통이다” 라고 답한 학생이 5명(15.63%), “아니다” 라고 답한 학생이 3명(9.38%)으로, 약 75%의 학생들이 매우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이 진로 준비에 기여한 정도

6. 주관식 문항인 현재 문헌정보학과의 교육과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는 총 13명의 학생들이 답변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학생들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1) 사서공무원이나 사서교사 등 시험 준비가 필요한 진로를 위한 과목, (2) 실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 (3) 출판 관련 과목 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학생들의 실제 응답은 다음과 같음.

- 자유로운 사고의 힘을 키워주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2학년이 된 후 들을 수 있는 전공 과목의 수도 늘어나고 내용도 어려워져서 초반에는 적응하기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1학년 전공으로 정보학과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등 취업 시 요구되는 과목의 비중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 사실 지금도 좋지만, 출판에 집중한 강의가 하나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공무원 시험이나 도서관 취업 시 요구되는 과목을 좀 더 비중있게 추가하면 좋겠다.
- 더 많은 실습 기회의 제공, 공공도서관 사서직 스터디 등
- 심화적인 과정
- 실무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다루어도 좋을 것 같다. 사서공무원이나 사서교사 쪽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과라고 생각해서 해당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공부해야 하는 과목을 준비할 수 있는 교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4년 동안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의 수업은 정보학, 네트워크 쪽에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대학, 학교도서관의 사서가 각각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어떤 일을 하는지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계전공인 박물관학 커리큘럼에 있는 기록관리 수업이 수강학기 내 열리지 않아 듣지 못한 게 아쉬웠다.▪ 대학도서관 관련 강의, 프로그램 기획(관련 정책, 근거 법, 지원 기관에 관한 자료 찾기), 마케팅과 데이터분석, 출판 시장 및 흐름, 예술 관련 기록관리(아르코 예술 기록원 등)▪ 통계 |
|--|--|

□ 전공능력 제고를 위한 전공 교육과정 구성

○ 전공능력별 교육과정 편성 현황

전공능력	학년	해당 교과목명	과목/학점
정보수집·조직능력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색논리: 알고리즘과 질의생성 기초메타데이터 도서관 정보자원개발론 정보조직: 분류 	(4)과목 / (12)학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베이스의 기초 멀티미디어 정보조직 목록과 의미론적 정보가공 웹인터페이스 디자인설계 	(4)과목 / (12)학점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관조사론 빅데이터와 시맨틱웹 	(2)과목 / (6)학점
	소계		(10)과목/(30)학점
정보분석·종합능력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색논리: 알고리즘과 질의생성 문헌정보학의 이해 정보이용자연구 정보학이론 세미나 학술연구 정보리터러시 	(5)과목 / (15)학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베이스의 기초 디지털도서관 시스템평가 웹인터페이스 디자인설계 	(3)과목 / (9)학점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관조사론 다매체환경에서의 웹서비스 빅데이터와 시맨틱웹 	(3)과목 / (9)학점
	소계		(11)과목/(33)학점
정보서비스 기획·운영능력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색논리: 알고리즘과 질의생성 도서관정보자원개발론 사회정보학 정보검색실습 정보이용자연구 	(5)과목 / (15)학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정보서비스론 데이터베이스의 기초 도서관·정보센터 경영기획론 웹인터페이스 디자인설계 정보서비스론 정보윤리와 지적재산권 	(6)과목 / (18)학점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종별도서관 다매체환경에서의 웹서비스 주제별정보원 현장실무실습 I 현장실무실습 II 	(5)과목 / (15)학점
	소계		(16)과목/(48)학점
총 합계			(26)과목/(78)학점

○ 전공 교과목별 SWU2030 핵심역량 및 전공능력과의 관련성(Mapping)

전공 교육과정				SWU2030 핵심역량				전공능력		
학년	학기	학수번호	교과목명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	글로벌 시야 역량	감성적 인성 역량	디지털 능력	정보 보급 · 전력	전문 적 · 융 합 능 력	정보 서 기 화 · 응 용 능 력
1	1	LI03052	정보사회도서관문화론	2	2	2	3	2	2	2
1	2	LI03009	정보시스템발전사	3	2	2	5	4	4	3
2	1	LI03031	정보이용자연구	5	5	5	3	4	5	5
2	1	LI03041	기초메타데이터	5	1	3	4	5	4	3
2	1	LI03044	학술자료 기술양식의 이해	3	1	1	3	4	3	2
2	1	LI03053	문헌정보학의 이해	4	4	4	4	3	5	2
2	1	LI03055	도서관정보자원개발론	4	2	4	4	5	4	5
2	2	LI03032	검색논리 알고리즘과 질의생성	4	2	3	5	5	5	5
2	2	LI03034	학술연구 정보리터러시	4	4	4	4	3	5	2
2	2	LI03035	정보검색실습	3	2	4	4	4	4	5
2	2	LI03039	정보조직: 분류	5	1	3	4	5	4	3
2	2	LI03057	정보네트워크론	3	2	1	4	3	4	3
2	2	LI03062	정보학이론세미나	4	4	4	4	3	5	2
2	2	LI03064	사회정보학	4	4	4	4	2	3	5
3	1	LI03045	데이터베이스의 기초	5	2	2	4	5	5	5
3	1	LI03020	도서관·정보센터 경영기획론	4	2	4	4	3	4	5
3	1	LI03029	목록과 의미론적 정보가공	5	1	3	4	5	4	3
3	1	LI03030	정보윤리와 지적재산권	4	3	3	3	3	4	5
3	1	LI03047	정보서비스론	3	3	4	3	4	4	5
3	1	LI03051	도서관온라인커뮤니티 조사론	4	4	4	4	4	4	3
3	1	LI03063	웹인터페이스 디자인설계	4	2	2	4	5	5	5
3	2	LI03046	기록관리론	2	2	2	3	4	4	4
3	2	LI03056	교육정보서비스론	5	2	5	3	4	4	5
3	2	LI03061	디지털도서관시스템평가	4	2	3	4	4	5	3
3	2	LI03065	멀티미디어정보조직	5	1	3	4	5	4	3
3	2	LI03068	정보전문가역량강화를 위한 캡스톤디자인스터디	4	4	4	4	4	3	3
4	1	LI03054	빅데이터와 시맨틱웹	5	3	3	4	5	5	3
4	1	LI03059	현장실무실습	4	4	4	4	3	2	5
4	1	LI03067	관종별도서관	5	3	4	3	3	4	5
4	1	LI03067	주제별정보원	4	2	3	4	4	4	5
4	2	LI03058	다매체환경에서의 웹서비스	5	3	4	4	4	5	5
4	2	LI03060	현장실무실습II	4	4	4	4	3	2	5
4	2	LI03070	전자정부정보서비스	3	2	2	4	3	3	4
4	2	LI03071	기록관조사론	4	3	3	4	5	5	3
(매핑값 합계)				136	88	110	130	132	137	131

※ 해당 교과목이 SWU2030 핵심역량 및 전공능력과 관련된 정도를 5점 척도로 표기

- 「표기방법: 5 (역량/전공능력 관련 핵심 교과목), 4 (관련성이 상당히 높음), 3 (관련성이 다소 높음), 2 (관련성이 있으나 높지 않음), 1 (관련성이 거의 없음)」

[별첨] 외부 자문위원 자문 내용

1. 공공도서관 분야: 불암도서관 도해진 사서

(1) 목적 및 방향

문헌정보학과 2021년 교과과정을 위해 현재 교과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점검하여 제언함으로써 전공 교육목표와 학교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전공능력을 가진 정보전문가 배양 및 함양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2) 내용

학과 전공능력으로 1. 정보수집·조직역량, 2. 정보분석역량, 3. 정보서비스 역량이 있는데 이는 모두 학교 및 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기록관이나 기업자료실 등에서는 정보수집·조직역량이, 연구소 자료실 및 동향분석이 중요한 기관에서는 정보분석역량이,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은 정보서비스 역량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가지 역량만이 아니라 모두 중요하게 여겨지는 역량이며 이를 발전시키고 차별화된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공공도서관 현장에 기반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수집·조직역량

현재 도서관에서는 도서 입수과정에 필요한 MARC작업을 1차로 외주에 주고, 2차로 사서가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서는 오류를 찾아내고 자료검색에 필요한 부출을 자관에 맞게 추가로 기입하게 됩니다. 이는 수서담당 사서의 역량에 오류가 맡겨지게 되면서 오류가 수정되지 않기도 하고 같은 도서를 소장하고 있더라도 도서관별로 검색결과도출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전문도서관이나 출판사 자료실에서는 외주를 주지 않고 직접 사서가 처음부터 기입하고 있기도 하며, 이렇듯 공공도서관 뿐만 아니라 다른 관공의 도서관, 출판사, 기업 자료실등에 근무하면서 사서만이 할 수 있는 자료조직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의 중요성과 다양한 정보조직사례 실습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LI03029 목록과 의미론적정보가공, LI03039 정보조직·분류, LI03065 멀티미디어 정보조직 등의 교과목에서 다양한 판형의 정보자료와 주제 분류 실습으로 상호보완해준다면 ‘정보수집·조직역량’에 대한 전문가의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정보분석역량

현대 정보전문가로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알고 있는 것은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 능력입니다. 도서관 정책과 방향의 흐름을 알고 미래를 그려나가려면 학부교과목에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살펴보고 도서관대회 발제문 및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각 구와 시의 기획서를 살펴보는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공공도서관 현장에서는 도서관발전 종합 5개년 계획에 맞추어 매년 다음 해의 세부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살펴봄으로써 미래동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해연도의 도서관 대회 발제문과 각 구와 시의 기획서까지 살펴본다면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이슈도 숙지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정보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LI03055 도서관정보자원개발론, LI03020 도서관·정보센터 경영기획론 교과목에서 심화 또는 발전과정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며 ‘정보분석역량’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정보서비스 역량

이용자의 잠재적 요구를 파악하고 이끌어 내는 것은 정보전문가가 갖추어야 하는 정보서비스 역량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정보제공자의 입장이 아닌 정보 이용자의 입장으로 현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며 LI03031 정보이용자연구, LI03047 정보서비스론 교과목에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정보제공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해보고, 다시 이용자로서 역할을 바꾸어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를 점검해보는 실습이 진행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서비스 역량 중, 네트워크 기반 기술과 프로토콜 및 웹 기반기술 이해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또 다른 능력일 것 같습니다. 현재 도서관은 비대면 서비스 및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어 사서의 업무도 네트워크 관련 업무로 조금씩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ZOOM프로그램 활용 시 여러대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다중 호스트를 관리하고 이와 동시에 이용자 및 시스템을 통제할 줄 알아야하며 QR코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책, 시스템관리 등 실시간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시 네트워크의 원리와 구조를 숙지하고 있어야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를 아는 것은 미래의 ‘정보서비스 역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결론

현재 문헌정보학과의 전공능력 세 가지(1. 정보수집·조직역량, 2. 정보분석역량, 3. 정보서비스 기획·운영역량) 모두 현장업무에 있어서 분명히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과목에서 현장사례를 살펴보거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실습을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대학도서관 분야: 서울여자대학교 도서관 유나현 사서

서울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전공 교육과정 및 전공능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과목에 대한 제언 내용을 대학도서관 사서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정보수집·조직역량

정보·자료선택능력의 경우, 정보 자체의 질적 평가를 기반으로 한 선택도 중요하지만, 예산 및 정책 등의 현실적인 기준을 고려한 선정 과정또한 실무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실학술활동을 통한 정보원(위조학술지 및 약탈적학술지)을 가려내는 능력과 OA 자료의 '더블디핑' 사례를 걸러낼 수 있는 학술정보원 이용 데이터 검토 능력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입수 과정 중 사업 진행 및 계약 과정에서 관련 업체/타 부서와의 소통 및 협상 능력이 실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도서관정보자원개발론> 및 <디지털도서관 시스템평가> 교과목에 반영하면 도서관 실무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도서관 특성화 컬렉션 구성에 대한 이슈로 인해 정보분류능력 및 메타데이터작성능력에 있어서 자관 컬렉션 및 큐레이션에 대한 특수한 분류 및 조직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보조직: 분류>, <멀티미디어정보조직> 및 <빅데이터와시맨틱웹> 과목에서 전통적인 분류방식(KOC 및 DOC)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특수 주제 및 컬렉션에 대한 분류 체계를 만들어보고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는 실습을 병행한다면 이론을 기반으로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2) 정보분석역량

정보자원/프로그램 이용성과 분석 및 운영평가를 위하여 각종 정부기관 정책 및 평가 항목(대학도서관 평가 및 대학기관평가인증 등)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해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도서관 운영 방식 및 서비스를 개선하는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정보센터 경영기획론> 교과목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면 도서관 실무에 직접적인 분석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대학도서관 신축 및 리모델링 추세와 본교 도서관의 리모델링을 통해 도서관 공간 구성 및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당 내용이 정보분석역량 중 시설환경 이용평가능력과 맞물려 교과 내용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도서관·정보센터 경영기획론> 교과목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거나 도서관 건축 계획, 실내 디자인, 공간구성, 시설 활용 및 사례 등을 다루는 <도서관 공간구성 및 시설활용(가칭)>과 같은 교과목 추가 개설이 이루어지면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정보서비스역량

최근 중요시되는 정보서비스 역량으로는 이용자의 교육학습 및 연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보서비스론> 및 <주제별정보원> 교과목에 도서관 정보활용교육 기법 및 연구지원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보서비스 기획, 운영에 있어 홍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이용자 특성, 트렌드에 적합한 홍보 전략 및 기법(예: 소셜미디어 활용,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서비스홍보> 교과목이 신설되면 추후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언택트 시대 및 글로벌/다문화에 걸맞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이 정보서비스 관련 교과목에 전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전문도서관 분야: 한국과학기술정보원(KISTI) 유수현 박사

(1) 교과과정 전반에 대한 의견

<세부 전공의 특성화 전략>

- 학과의 과목들을 훑어보았을 때, 문헌정보학의 세부 학문분야를 두루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문헌정보학의 전반을 두루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학과의 목표라면 이에 적합해 보입니다. 다만, 다른 학교 동일학과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특정 세부 학문분야에 강점을 두는 전략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과학 연계과목에 보다 강점을 둬으로써, 데이터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공유·활용·관리에 필요한 핵심인재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서비스/콘텐츠 기획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전공 로드맵을 개발하여, 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면 비단 전통적인 도서관·정보센터 뿐 아니라 웹서비스, 콘텐츠 기획을 요구하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취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론과목의 1학년 배정>

- 1학년 시기에는 아직 전공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부족한 시기이므로, 1학년 1학기 때 정보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다루는 수업을, 1학년 2학기 때에는 정보시스템발전사가 아닌, 문헌정보학의 이해(혹은 문헌정보학 개론)를 이수하도록 하여, 학문의 개요를 파악하고, 2학년부터는 본격적인 전공 수업이 전개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 또한 1학년 2학기 때 도서관사를 배운 것으로 기억합니다만(1996년), 도서관사(혹은 현재의 정보시스템발전사도 마찬가지로)는 문헌정보학을 이해하고, 전공의 확고한 결정을 내리도록 붙잡아주는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도하고, 본인의 적성과 적합한지도 가늠해 수 있도록 문헌정보학의 이해(혹은 문헌정보학 개론)를 1학년 과목으로 배정하면 좋겠습니다.

<교과목명의 직관적 명명>

- 전반적으로 교과목명과 내용이 다소 매칭이 잘 되지 않는 과목들이 더러 눈에 보입니다.과목명을 보다 직관적으로 명명하여 해당 교과에서 목표로 하는 바가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보사회도서관문화론, 학술연구정보리터러시, 검색논리: 알고리즘과 질의생성, 사회정보학, 목록과 의미론적 정보가공, 온라인커뮤니티조사론, 교육정보서비스실습, 다매체환경에서의 웹서비스 등)

(2) 전공역량에 대한 의견

- 학과에서 설정한 정보수집/조직역량, 정보분석 역량, 정보서비스 역량 모두 전문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으로, 이는 관중에 관계없이 정보전문가로서 필수 역량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도서관의 규모나 부서, 본인이 맡은 업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 정보서비스 역량 중에서도 정보서비스 기획능력과 더불어 프로젝트 관리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서비스 담당자는 정보서비스 기획 및 설계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파악하여 서비스 및 시스템을 기획해야 하는 기획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때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사 혹은 도서관내 개발팀 직원과의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는 위치에 있으며, 서비스/시스템 기획 역량 뿐 아니라 프로젝트 관리 혹은 프로세스 관리 능력이 요구됩니다.

(3) 추가개설 제안

1)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이해

- 도서관·정보센터 현장에서는 전통적인 도서관 업무(장서개발-조직-서비스)를 넘어서서 학술정보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면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센터를 둘러싼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을 파악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참여자들인 도서관, 연구기금기관, 연구지원기관, 출판사, DB 제작자/유통사, 연구자 등 각 이용주체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학술정보 라이프 사이클에서 정보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정보협력론

- 도서관·정보센터는 모기관에 속한 조직이면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정보협력을 수행합니다. 정보나 데이터 등의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의 공동활용을 도모하고, 국제적 운동에 동참하기도 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창구나 접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에 지식정보의 생산·조직·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조직/기구, 협의체, 컨소시엄, 워킹그룹, 주요 선진국의 정보센터 등의 기능과 역할을 습득함으로써, 글로벌 협력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겸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혹은 데이터 큐레이션, 나아가 정보자원 큐레이션)

- 최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 재편으로 학술 커뮤니티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 공유하는 정책과 데이터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의 수립, 데이터 리포지터리 구축 및 운용 등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수요가 높습니다. 이에 이미 학교에서 데이터 과학 연계전공을 개설하여 해당 교과목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문헌정보학 측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은 데이터 큐레이션에 초점을 두고, 필요한 데이터의 선별, 메타데이터 기술, 가공, 저장, 리포지터리 구축 및 운용/기탁, 공유와 재사용 등 관련 정책의 이해와 관리 방안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 과학 연계전공 측에서 개설하는 과목이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하는 것이라면 데이터 운용의 기술적인(technical) 관점 보다는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추어 데이터 생태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내용을 제안합니다. 정보자원 큐레이션이라는 과목으로 개설된다면, 데이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유형을 포괄하는 정보자원의 큐레이션을 다루면 좋겠습니다.

4) 추가로 다루기를 제안하는 내용들

- * 이하 내용은 현업에서 필요한 역량 및 지식으로, 한 과목을 구성하기보다는 현행 어느 과목에서든 다루기를 제안하는 내용들입니다.
- 오픈액세스와 학술출판 :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과목에서 다루면 좋을 듯 합니다. 학술정보 및 데이터의 공유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학술출판과 공유를 위한 각종 정책, 표준, 프레임워크, 리포지터리 등을 습득하는 내용입니다.

- 글로벌 동향 수집 및 분석 : 동향정보원을 파악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동향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봉사 대상자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동향 분석을 통해 그 변화가 모조직 혹은 대상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합니다. 단순하게는 동향 정보원 수집 채널의 확보 방안, 다양한 분석 툴 및 플랫폼을 활용한 정보 분석 훈련, 데이터의 전처리 및 시각화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법 등을 교과내용에 수록하면 좋을 듯 합니다.
- 데이터 분석 : 위의 글로벌 동향 수집 및 분석내용과 유사합니다.(글로벌 동향 정보는 전문도서관에서 특히 필수적인 자원이라 별도로 언급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다양한 통계시스템을 통해 정보자원의 이용현황을 분석하고,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내용으로 통계 분석에 보다 초점을 맞춘 내용입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kr), 전자자원의 통계 표준인 COUNTER 통계 등 각종 통계시스템에서 통계정보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인용DB로부터 각종 데이터를 반입하여 재가공, 조합함으로써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 내는 통계능력이 요구됩니다.
- 정보서비스 마케팅 : 도서관 혹은 정보서비스 마케팅은 도서관·정보센터 경영기획론에서 추가로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 현장에서는, 특히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라면 서비스 기획에서 운영, 마케팅까지 1인 다역을 소화해야 합니다. SNS를 활용한 마케팅, 이용자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 등, 정보서비스 마케팅의 중요성을 알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마케팅할 수 있는 기법을 습득하는 내용을 다루면 좋겠습니다.

(4) 현행 과목에 대한 소견

- * 이하 내용은 2020년 요람에 기재된 교과과정 및 내용에 대한 일부 과목별 소견입니다.
- 정보사회도서관문화론 : 과목명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다양한 정보환경의 이해와,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향후 어떤 기능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를 다루는 “정보사회의 이해” 정도가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보시스템발전사 : 문헌정보학 발전사에 대한 이해는 문헌정보학의 이해 과목에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학년 2학기 학생들의 전공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재수나 편입, 전과 등을 심각하게 고려할 시기)에 문헌정보학에서 다루는 학문분야를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관심있는 분야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문헌정보학의 이해 혹은 문헌정보학 개론 수업으로 대체를 제안드립니다.
- 학술자료 기술양식의 이해 : 학술정보 기술양식에 대한 이해는 향후 XML 구축이나 웹서비스 기획에도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하나의 과목으로 만들기 보다는, 기초메타데이터 과목에서 함께 배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서관정보자원개발론 : 디지털 정보자원의 개발을 위해 컨소시엄의 구성 및 참여, 협상과 개발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확보와 분석 등은 (인쇄)장서개발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자원 개발을 위한 제요소들을 해당 교과목에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학술연구정보리터러시 :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가 필요할 때를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의 소재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ALA 1989)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교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은 통계개념과 기본 분석방식에 대한 이해로, 정보 리터러시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학술정보 리터러시라는 교과목으로 일반 공공도서관에서 많이 서비스되고 있는 정보 리터러시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에 특히 필요한 다양한 디지털 정보원, 커뮤니케이션 툴 등을 다루는 디지털 리터러시, 다양한 매체와 도구, 플랫폼을 막론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인 트랜스 리터러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 등을 그 내용으로 다루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 송경진, 차미경. 2014. 문헌정보학과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있어서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권 4호. pp. 215-240.

〈표 3〉 공공도서관 리터러시 서비스의 종류와 개념

종류	개념
조기 리터러시 (Early literacy)	성공적인 읽기와 쓰기를 위해 만 8세까지의 아동들에게 개발되어야 하는 지식과 기술, 뇌의 인지발달, 아동을 돌보는 환경에 대한 반응, 언어발달, 듣기와 말하기, 가족 및 사회와의 관계 형성을 포함
가족 리터러시 (Family literacy)	가족과 좀 더 넓은 개념의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형성에 필요한 부모, 보호자, 어린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전통적/비전통적인 일상생활 속의 읽기와 쓰기를 아우른 개념
성인 리터러시 (Adult literacy)	다양한 맥락에 따른 인쇄, 필사, 전산화된 모든 자료들을 확인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창조하며,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때의 리터러시는 각 개인이 스스로의 지식과 잠재력을 개발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공동체와 사회 속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연속적인 학습활동과 관계됨(UNESCO 2004, 13)
디지털 리터러시 (Digital literacy)	학습, 소통, 협력, 창조 등의 활동을 위해 디지털정보원, 커뮤니케이션 툴, 네트워크 등을 자신 있게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The School Library Association of Victoria 2010)
정보 리터러시 (Information literacy)	정보가 필요할 때를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의 소재를 파악하고,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ALA 1989)
트랜스 리터러시 (Trans literacy)	어떠한 표식이나 구술, 필사, 인쇄, TV, 라디오, 필름에서부터 디지털 네트워크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매체와 도구, 플랫폼을 막론하여 읽고, 쓰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 (Thomas 2007)

출처: State Library of Queensland, 2011. *Libraries for Literacy: Every Day, Every Way 2011-2014*. Queensland, Australia.

- 검색논리: 알고리즘과 질의생성 : 해당 교과는 알고리즘과 질의생성 이외에도 정보검색의 전반적인 이해와 정보검색 시스템 평가까지 그 교과내용에 포함하므로, 정보검색론 혹은 정보검색의 이해라는 보다 일반적인 명칭으로 변경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해당 교과목에서 검색엔진 최적화(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에 대한 개념과 기법을 이해하고, 정보검색실습 교과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 사회정보학 : 이 과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궁금합니다. 교과내용을 살펴봤을 때 정보사회의 이해와 맞물려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과목명만 봤을 때는 이런 과목이 문헌정보학의 전공과목으로 필요한가, 문헌정보학에서 실시하는 교양과목이 적합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 목록과 의미론적 정보가공 : 먼저 과목명에 오는 중압감이 과목 수강율을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목록의 이해라든가, 정보조직: 목록 정도면 어떨까요. 또한 해당 교과에 내용에

멀티미디어 정보조직 과목의 내용을 추가하여, 한 과목으로 수강하는 것이 좀더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교과내용에 MARC 기반의 목록을 넘어, LOD나 RDA의 개념의 이해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해당 교과는 이후 빅데이터와 시맨틱웹의 선수과목이 되어야, 빅데이터와 시맨틱웹 수업시 MARC에서 LOD, 시맨틱웹까지의 데이터 조직에 대한 흐름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보윤리와 지적재산권 : 정보자원의 공개, 공유가 활발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다양한 윤리문제가 대두되는 이 시점에 매우 적합한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도서관·정보센터에서 유의해야 하는 저작권 문제 이외에도, 연구자의 연구윤리, 학회/출판사의 출판윤리, 허위·부실 학술지 투고 및 부실행사 참석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인공지능을 포함한 정보서비스의 윤리 이슈,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 정보전문가로서 파악해야 할 이슈들을 포함하면 좋겠습니다.
- 데이터베이스의 기초 :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관리를 다루는 교과목으로, 점차 학술정보시스템(특히 학술출판)의 블록체인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바, 블록체인에 대한 간단한 개념 정도를 이해하는 시간이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 교육정보서비스실습 : 해당 교과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정보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어린이청소년 정보서비스 실습이라는 명칭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관중별도서관 : 전문도서관 영역에서는 연구성과 및 연구노트 관리, 학술출판 전주기 프로세스의 이해(학술정보 검색, 저작, 아카이빙, 투고 및 출판, 동료심사, 편집, 색인 및 인용 등) 등의 내용이 다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영역에서는 (디지털) 지역정보 서비스, 문화복합공간에서의 도서관의 역할 등이 포함되기를 제안드립니다.
- 다매체환경에서의 웹서비스 : 교과목명으로는 웹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교과내용을 살펴보면 서비스 및 콘텐츠 기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교과목을 디지털서비스 기획론 혹은 콘텐츠/서비스 기획론 등으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급변하는 ICT 기술에 발 맞추어 그에 따른 콘텐츠 및 서비스, 시스템을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과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장 업무의 많은 부분이 기획력을 요구하며, 각종 서비스나 시스템의 청사진에서부터 출발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를 관리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자원의 적절한 배분과 시간관리 등의 프로세스 관리 능력도 기획자의 능력에 포함됩니다.
- 전자정부정보서비스 : 해당 교과목이 기록관리학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현재 요람에서는 기록관리론(3학년)과 기록관조사론(4학년) 두 개의 교과목이 기록관리학 영역으로 보이며, 전자정부정보서비스가 기록관리학 영역의 수업이라면 다른 학년으로 배분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나 기록관리학 영역이 아니라면,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전자정부정보 서비스가 일반 디지털 정보서비스와 큰 차이가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교과목은 별도의 과목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4. 학교도서관 분야: 포천중학교 송현정 사서교사

- (1)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에서 학교도서관사와 학교도서관 경영에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학교 유휴공간을 재구성하여 도서관 리모델링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경영에 있어서 공간구성뿐만 아니라 나아가 학교 안에서의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 현재 학교 안에서 독서, 인문교육의 활성화가 대두되고 있어 독서교육론, 나아가 아동, 청소년(초·중·고)의 발달심리를 이해하고 발달단계에 알맞는 독서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학교폭력, 가정, 교우관계, 연애 등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주제와 연결지어 독서자료와 독서교육을 함께 연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3) 코로나 19 상황으로 온라인 학습이 활성화되고 온라인 학습자료, 교구가 필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서교사가 온라인 학습자료나 학습 콘텐츠를 제작해보아야 타 교과 교사들에게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다양한 교수매체들을 활용하여 온라인 학습제작, 교구, 학습자료 제작 기법을 익힐 수 있는 교과과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4) 초, 중등에서 사서교사의 협력수업, 도서관 활용수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과교사와 협력하여 타 교과의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학교도서관을 활용하는 교과수업을 연구하고, 구체적인 설계, 기획하는 수업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다른 학교의 성공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학교도서관 협력수업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 (5) 초, 중, 고등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는 수업이 개설되면 좋겠습니다. 독서캠프, 문학기행, 작가와의 만남 등 학교 안에서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독서행사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서비스 영역을 학교 급(초·중·고), 성별(남, 여), 독서수준 등을 고려하여 연구, 개발하여 서로 수업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수업이 개설되면 좋겠습니다.
- (6) 초등에서는 사서교사의 수업시수가 늘어나고, 중등에서는 자유학기, 학년제 도입으로 사서교사의 주제선택 수업 등 사서교사의 단독수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 교과들처럼 교과서가 있는 과목이 아니기에 그림책 활용수업, 보드게임 활용 독서수업 등 비교과 교사들의 수업연구, 수업컨텐츠 연구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초·중·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업연구 및 수업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과목이 개설되면 좋겠습니다.